

우리에게 보이신 비밀을 아는 마음

고린도전서 2:6-16

- 6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 7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 8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 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 11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 15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 1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약 5년 전에 친구가 타이어 수리 키트를 주었습니다. 저는 "친구야, 나는 캐나다 도로를 달리고 있지, 안데스 산맥의 산악 도로는 안 달려! 이 타이어 수리 키트는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고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키트를 오토바이의 보관 칸 한 칸에 넣어두었습니다.

몇 주 전에 다른 라이딩 친구와 함께 프린스턴으로 커피를 마시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보츠포드에 도착했을 때, 제 오토바이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었죠. 주유를 위해 멈췄을 때(기름값이 싸죠 아보츠포드는 😊), 제 라이딩 친구 댄이 뒤 타이어가 거의 펑크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펑크가 나 있었습니다.

댄은 근처에 오토바이 수리점이 있는 곳을 알고 있어서 그 수리점으로 갔습니다. 주인은 시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YouTube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제 보관함에 완벽한 타이어 수리 키트가 있었습니다(사진). 타이어 펑크를 수리할 때, 타이어에 못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펑크도 수리하고 나니 저희는 전문가가 되어있었습니다.

5년 전에 그 키트를 줬던 현명한 오토바이 친구가 더 멀리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제 오토바이는 구한 셈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현명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누가 우리에게 그 지혜를 줄 수 있는 친구일까요? 그 지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1) 우리에게 보이신 비밀(6-9절)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6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시대의 지혜(우리 문화와 역사 속의 지혜)는 항상 변화합니다. 각 세대는 과학, 도덕성, 가치관, 라이프스타일(예: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 가족(예: 양육 방법 - 밀레니엄 세대 자녀를 둔 베이비붐 세대 부모가 알파 세대 손주를 양육하는 모습)에 관한 이전 세대의 합의를 뒤집습니다. 이 시대의 지혜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항상 변화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우리는 새로운 것,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패션에 끌립니다. 우리는 순간(바로 눈앞에 있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정신에 쉽게 끌립니다. 그것이 바로 미성숙함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성숙한 자들 가운데" 지혜를 전합니다. "성숙함"이란 영적인 이해력이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을 말한다기 보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 비해서요,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삶 속에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9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정의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모든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입니다

성숙한 자들은 특별한 계시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신비한 비밀을 똑똑한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전하지 않았습다. 기독교 신앙은 비밀 코드와 이해하기 어려운 관행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형적인 예는 미스터리 스릴러,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이미지)로, 잃어버린 문서에 숨겨진 비밀 지식이 담겨 있으며, 이를 소수의 내부자들이 발견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이 엘리트와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이 시대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질투심을 품고 경쟁심을 조장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아를 죽이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성숙한 것입니다. 성숙한 자들은 예수님의 자기희생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며, 십자가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정의하기 전에 이 시대의 통치자들을 봅시다. 그들은 이 거룩한 지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8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울은 지상의 통치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유대 종교 통치자들; 가이사, 헤롯 안티파터,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정치적 통치자들 말입니다. 이들은 1장(26-28절)에 나오는 지혜롭고 강력한

며 문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통치자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 삶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 유대 사회에서의 지위,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력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로마 통치자들은 군사력, 세속적 영광, 그리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억압하는 것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유대인이나 로마인 모두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두 가지가 상충합니다. 금요일 오후는 로마와 유대 통치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세상의 지혜가 다시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아침이 되자, 영광의 주님이 무덤에서 나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겸손의 지혜, 사랑의 희생과 봉사입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무지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 시대의 통치자들은 "사라질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 "무"로 끝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영향력 있다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없어지거나,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명성을 잃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말입니다!

이 시대의 지혜는 시간에 얽매어 있고 항상 변합니다. 하루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몇 초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이 시대의 통치자들은 강력하고 오래갈 것 같아도,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7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고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플랜 B나 C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지혜를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획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로마서 8:17-18).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즉 우리의 부활과 완전한 구원(영광)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모두 이 방향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원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세 명의 형제들과 저는 아내와 함께 아버지의 97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사진). 아버지는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불어서 끄실 수는 있었지만 약하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넘어져서 불편해하셨습니다. 나이가 들고 계셔서 그런 거죠. 지난주, 아버지는 제 둘째 동생과 함께 침대에 앉아 있을 때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저를 기쁨으로 영원한 세계로 보내주시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듯이,

8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8-9).

동시에, 이 복되고 확실한 소망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가려져 있습니다(마음이 완악하여 눈이 멀어서). 그들 스스로는 신비를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베드로 전서 1:21-23). 그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사야 64:4를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의 언어를 빌려 성경적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 귀, 마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고와 이해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눈(관찰과 추론)을 통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귀를 통해 오지 않습니다(사회에서 알려진 기존의 상식). 마음(직관적인 통찰력)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계시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역사 속에서의 그의 구원 사역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영원한 통치를 통해 계시된 그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 전에 인류를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해 계획하신 방법입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예수 안에서 알려졌기 때문에 "드러난 비밀"입니다. 그것은 인간 역사에서 명백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난 비밀"이지만 그 비밀을 보는 데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타이어 수리 키트가 분명히 보였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누가 우리 인간의 눈과 귀와 마음을 영광의 주님의 영원한 지혜를 보도록 열어 줄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2) 비밀을 보이시는 성령(10-13절).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고, 꿰뚫고, 자세히 살피시며, 이해하고, 드러내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깊은"에 대해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의 본질(신성함), 그의 미리 정하신 뜻, 그리고 인간 구원을 위한 그의 계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55:8-9

8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9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신과 인간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그러하며 항상 사실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쓰일 당시, 널리 글을 쓴 매우 영향력 있는 유대인 학자이자 철학자인 알렉산드리아의 필로(기원전 25년-서기 50년)는 인간의 영이 우주의 신성과 더 높은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절대적으로 반박합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무언가를 알 수 있습니다.

11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개인적인 기억, 성찰, 동기를 처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해는 인간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의식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과 사도들과 그들의 제자들에게 복음, 그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원주의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17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신학)은 항상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에서 연구합니다, 성령께서 보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 생각할 때 곧바로 영적 은사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들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바울이 두 장 전체에 걸쳐 영적 은사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의 은사는 의견 불일치와 분열의 영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2장에서 기초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는 성령의 사명, 활동, 그리고 기독교 영성의 형태(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재정의합니다. 은사와 봉사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성령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바랬던 것은, 성령의 역사의 핵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계시하는 일임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인들은 "세상의 영", 즉 거짓말하고, 반항하고, 편을 나누고, 학대하고, 파괴하는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그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 즉 그의 신성, 그의 예정된 뜻, 그의 구원의 계획(엡 1:17)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를 안다면 세상적인 교만, 성적 부도덕, 분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겸손과 하나 됨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렇게 할 때만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나요?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린도 전서 3:16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교만하며, 교회를 나누고, 성적 부도덕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숙한 사람들조차도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성령 충만함 안에서 걷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영적 은사나 영적 지도력과 관련하여 남용이 있다면, 문제는 결코 하나님의 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부풀려진 자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 교만으로 가득 찬 정신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절실히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모든 지혜와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십자가의 말씀을 이해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더 많은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성령이 필요하며, 덜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은, 성령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에 대해 가르치신 것을, 성령께 받은 말대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요점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중심을 둔 그 비밀을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것들은 영에 의해 우리의 마음에 넣어집니다.

(3) 우리 마음 속의 성령(14-16절).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는 매우 영적이지만 질서가 조직이 잘 되어있는 종교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나만의 영적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을 숭배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일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실제로는 영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바울이 묘사한 "육에 속한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이것은 이미 교만함으로 가득 찬 자기주장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고, 영적 실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의

머릿속에서만 영적일 뿐입니다. 그들은 사실 세상의 영을 따르고 있으며, 세상의 영은 진정한 영적 현실에 대해 눈 멀게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보여 주시는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예수님은 누구인가

- 인류를 위한 그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가

-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일상생활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의 의미

육에 속한 사람은 인간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역의 것들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오르페움 극장에서 열린 멋진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악기, 가사, 합창단, 독주자를 감상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복음으로 된 가사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4절을 묵상하면서, 존 칼빈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마주한 불신자는, 콘서트에 있는 당나귀와 같습니다." 약간 신랄하지만, 슬프게도 사실입니다. 당나귀는 음악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해할 이유도 직감도 없으며, 당나귀 소리를 내며 발로 차는 것으로 그저 콘서트를 망치거나 합니다.

아테네의 현명한 철학자들은 바울의 설교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17:18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

"blabber 말을 떠벌리는 자"라는 단어는 "닭이 씨앗을 쪼아먹듯이 포인트 없이 조잘대며,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채 뱉어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밖에서 이렇게 말만 떠벌리는 사람은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잡다한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아그립바 왕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베스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행 26:24).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무표정한 얼굴이나 비웃음 가득한 반응을 받아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무표정일 수 있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받을 수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아직 그들이 이해하도록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영의 깨우침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기독교 신앙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분들도 자유롭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깨닫는 영을 받았습니다.

15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단어 "판단하다"에 담긴 뜻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자세히 살핀 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모든 것에 있어 영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와 행동에 대해 판단하라고 지시합니다. 예를 들어, 5장에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근친상간을 저지른 회개하지 않는 교인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제거하라고 요청합니다(참조 5:9-12; 12:3; 갈 1:8).

동시에 영적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에 의해 판단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과 유대인 서기관들은 바울의 복음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며 영적인 삶의 방식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16절에서 확인됩니다.

1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떤 인간이 그의 인간적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그의 지혜, 생각, 계획)을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총합해서, 그 의미를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은사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씁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압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은사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권하심, 그리고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성령의 은사도 압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즉,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바치고, 하나 됨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다가십시오. 더 많이 아는 것 같은 신학자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의 비결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뉴에이지 교사들과 마음 챙김 전문가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비밀의 영,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의 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묵상 질문:

1. 여러분의 세상에 대한 이해는 이전 세대와 어떻게 다른가요?
2. 영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는 고린도 전서 2장과 일치하나요?
3.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번 주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은 어떻게 소통하며,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